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Advancement Plan for Academic Research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김도윤(Do-yoon Kim)¹, 이해영(Hae-young Rieh)²

E-mail: dykim@mju.ac.kr, hyrieh@mju.ac.kr



¹ 제 1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
²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교수

논문접수 2021-07-20
최초심사 2021-07-23
게재확정 2021-08-13

ORCID

Do-yoon Kim
https://orcid.org/0000-0001-8469-5265
Hae-young Rieh
https://orcid.org/0000-0002-6300-2543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본 논문은 김도윤의 석사학위논문 「기록 관리기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대통령기록관을 사례로」(2021)를 요약·수정된 것임.

초 록

방대한 정보 획득의 공간속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2019년 대통령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유일하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되는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미흡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8명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나, 배경지식에 따라 정보격차가 컸고, 정보가 부족하면 연구 범위를 축소시키며, 검색도구, 기록 관리 및 기록 공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도화방안을 연구자 간 정보격차 감소, 검색도구 기능의 개선, 기록의 상세한 기술, 지리적 제약의 해소, 학술연구지원서비스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주제전문 아키비스트 양성 및 온라인채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demand for finding clearer information amid vast information acquisition increases, the enhancement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s highly important. In 2019, the Presidential Archives opened the only academic research services among the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insufficient use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implemented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analyze problems and requirements through interviews with users who have used the Presidential Archives for academic purposes and conducted research, suggest a plan to upgrade the research service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offer a plan to improve the services of archives institutions accordingly. Researchers mostly sought information through an online search, but the information gap was large depending on the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research scope was reduced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Moreover, problems occurred regarding search tools,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and most users were unaware of the academic research services. Therefore, the advancement plans entailed reducing the information gap among researchers, improving the search tool functions, creating more detailed descriptions of records, resolving geographic constraints, promoting academic research services and developing content, nurturing subject-specialized archivists, and providing online chatting services.

Keywords: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 이용자 요구, 연구자 면담
Academic Research Services,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Records, Users' Needs, Research Interview

https://jksarm.koar.k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자원의 획득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기록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기존 아카이브의 운영방식은 폐쇄적이고 보존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방적 활용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커스토티언(관리인)에서 이용자들을 위한 조력자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아키비스트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최근에는 특히 학술연구자에 대한 기록정보서비스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로 정보 획득 환경에서 웹 검색 등의 과정을 통해 학술연구자와 아키비스트 간의 대면접촉이 최소화되었다는 측면, 두 번째로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 걸쳐 산재된 기록 중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록을 찾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심층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공존하게 되었다(김태영 외, 2014). 학술연구자들은 대면접촉 없이 웹을 통해 능동적 기록 탐색이 가능해졌지만, 더 명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요구 또한 커짐에 따라 정보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많은 기록관리기관은 보존을 중시하고 기록의 활용에는 관심이 부족하여,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 이용자와 학술 목적 이용자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록정보서비스가 정보공개청구 방식의 민원서비스로 진행되면서 획일화된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윤은하, 2012). 학술연구는 한 사회 혹은 국가 제 영역의 기초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근본적인 활동이다. 학술연구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 업무를 통해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은 학술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변화를 맞이하여 2019년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연구주제별로 공개 가능한 대통령기록을 안내하고 이용 편리를 도모해 대통령기록의 연구 자원화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연구주제 관련 대통령기록물 소장 여부 확인, 간략 정보 및 관련정보 등의 안내와 연구자가 원하는 공개기록물 목록 제공, 그리고 열람실, 식당 및 연구자 전용공간의 제공 등의 시설 이용 등이 포함되며, 기록 원본이미지를 열람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접수 후 지원이 가능하다(<그림 1> 참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¹⁾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은 저조하다.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서도 현 실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담당자는 이를 사실상 사장(死藏)된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방문하고 열람하여 기록물을 확인하는 기회 제공 정도의 수준이지, 연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였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히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2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 및 홍보’,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과 더불어, 제24조 제2항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기관의 기록 보존의 목적은 기록을 생산·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과 역사적 증거의 효율적 활용 및 설명책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록에 포함된 역사적 원자료를 관리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기록관은 비현용 단계의 행정, 법적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단순 제공만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관리한다는

1) 2021년 6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2021년 6월 7일 답변을 받았다. 답변에 의하면, 대통령기록관은 2019년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년 6월 현재까지 0명이었다.



〈그림 1〉 대통령기록관 연구지원서비스 설명
(출처: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측면에서도 연구 활동 지원에 있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시사하므로,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 서비스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기관의 연구지원서비스를 주제로 이뤄진 연구는 김지현(2013)과 김태영 외(2014)의 연구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연구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기록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 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유일한 실정이다(<표 1> 참고).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행태와 대통령기록의 중요성,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에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대통령기록관은 국정통치와 관련해 모든 행적을 문서화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강력한 설명책임의 의무를 지고 있기에, 대통령기록관의 학술연구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연구지원서비스 시행 여부

구분	기관명	연구지원서비스 시행 여부	웹 사이트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X	https://www.archives.go.kr/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	국회기록보존소	X	http://archives.nanet.go.kr/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X	없음
	헌법재판소	X	없음
	선거기록보존소	X	없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	X	http://archives.seoul.go.kr/
	경상남도기록원	X	http://archives.gyeongnam.go.kr/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O	https://www.pa.go.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 서비스를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의 활용 관련, 정보요구 과정에서의 문제 관련,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인지 여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여기서 제시한 방안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연구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대통령 기록을 활용하는 학술 목적 연구자들과 담당 관계자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깊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한 대통령 관련 각 연구 분야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배찬복(2001), 김병문(2006), 차우원(2013)의 연구가 있다.

배찬복(2001)은 미국 대통령제의 역사적 배경과 성공 요인과 한국 대통령제의 채택의 배경과 실패 요인을 알아 보고, 두 가지 대통령제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특유의 3권 분립 형태가 국가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제도가 아닌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대통령중심제의 적실성을 논의하였다. 김병문(2006)은 한국의 대통령 연구의 분야별 특징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에서의 대통령 연구를 개인적 및 심리적 요인, 시대적·사회적 상황 및 특수상황을 고려한 상황적 요인,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비서실 및 보좌조직의 구조와 기능, 의뢰와 전문 관료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제도적·조직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 연구의 방향성으로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경험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학제 간 빈번한 교류가 활성화되어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대통령 연구는 개인적, 제도적, 상황적 차원 등을 고려하여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차우원(2013)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 인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정책 환경, 대통령 개인의 성향, 대상 직위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정부안의 정부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아보고 긴급명령권, 헌법개정제안권, 국민투표부외권 같은 일련의 비상권한이 한국의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기능함을 제시하였다. 연구들은 대통령 관련 연구와 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범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사전 질문지 준비의 기초가 되었다.

기록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보제공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이해영(2012), 이해경과 이해영(2014),

남윤아와 임진희(2016)의 연구가 있다. 이해영(2012)은 웹을 통한 설문과 면담을 통해 기록관에서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기록관에서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하나, 그래도 내부 이용자들에 SNS 등을 통한 기록의 제공도 이뤄지고, 전시 등도 이뤄지는 등 서비스들이 일부에선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제공되는 검색도구는 검색 기능 등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비스 시행에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장벽이었고, 기록의 정리 부족과 시스템 미비에 의한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해경과 이해영(2014)은 국내 대학기록현장에서 실제 제공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 종류와 한계를 살피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12곳의 대학기록관 실무자와 직접 면담과 이메일 및 전화 면담 등을 통한 조사와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대학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남윤아와 임진희(2016)는 이용자들이 기록물의 존재 여부만 알고 실체를 모르는 상태로 방대한 기록 속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열람제공자의 업무 숙지도와 기록정보자원에 관한 지식이 정보제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기존 정보공개 절차를 살펴보고, 열람제공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을 질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기록관의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다룬 국내 연구로는 임여아(2008), 윤은하 외(2014), 성면섭과 이해영(2020)의 연구를 예로 살펴볼 수 있다. 임여아(2008)는 기록을 활용한 연구 활동의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가기록원의 연구지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호주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NAA), 영국 The National Archives(TNA)의 연구지원서비스 사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윤은하 외(2014)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정보공개청구는 일반인의 이용률은 증가한 반면에 학술연구자의 이용은 저조한 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술정보 서비스 절차가 복잡함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록을 이용한 19명의 연구자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이후 정보공개법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목적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성면섭과 이해영(2020)은 연구자 75명에 대한 설문과 8명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자들의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 경험 및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록관리기관의 학술연구 목적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들에게 민원 성격의 행정적 절차로 기록정보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학술 목적 이용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들은 본 연구 진행에 있어, 기록관에서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제점 및 이용자 면담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해외의 연구지원서비스 관련 연구의 경우 기록관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Rempel(2010)은 대학원생을 주요 연구자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112곳의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소속 연구도서관과 오리건 주의 학술도서관 26곳의 웹 사이트와 제공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25% 정도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링크가 있었으며, 이외 20%는 낮은 수준의 단계에서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비스로는 논문 검색이나 논문작성 방법 등에 대한 워크샵 및 주제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연구지원비, 논문 출판에 있어 저작권과 학술커뮤니케이션 이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Forsman, Ndinoshiho, Poteri(2012)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 도서관과 탐페레 대학 도서관, 나미비아 대학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를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용법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검색 방법, 오픈액세스, 계량서지학을 이용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Si et al.(2019)은 2017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의 상위 100개 대학 중 76개의 대학 도서관의 웹 사이트를 분석을 통해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주된

연구지원서비스로는, 오픈액세스 자료의 이용법, 연구 데이터 관리법, 학술연구 컨설팅과 출판 관련 정보제공, 연구 가이드, 연구를 위한 도구(tool) 추천, 연구 영향 측정 관련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Das, Banerjee(2021)는 대학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박사과정학생과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상당히 많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터넷 활용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서, 웹 사이트 정보탐색 도움 및 웹을 통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자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 AI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 방안 검토도 다뤄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들은 특히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방안 제시에 참고가 되었다.

연구자의 정보이용 행태, 정보 활동에 관련하여서는, 권나현, 이정연, 정연경(2012)과 한종엽과 서만덕(2014)의 연구가 있다. 권나현, 이정연, 정연경(2012)은 학문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21세기 환경에서 과학기술 R&D의 전주기기를 도출하고, 과학자들의 연구와 정보행동 조사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총 24명의 생명 및 나노과학 기술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로 국내 과학기술 R&D 전주기기를 총 5단계의 활동으로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단계별 주요 연구 활동과 특징적 정보행동을 파악하였다.

한종엽과 서만덕(2014)은 해양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웹 설문지를 통해 해양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15명의 데이터를 회수하여, 연구자의 연령, 학력, 연구 분야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과 전문도서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도서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로 맞춤형 정보검색 서비스,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 연구 동향분석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밝혀진 연구자들의 정보 이용 관련 문제점들과 제안 사항들은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자의 정보수집 행태를 이해하고 사전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 관련 해외 연구로, Conway(1986)는 4곳의 미국 대통령기록관 이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이용자 중 75%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였으며, 인맥을 통해 기록에 접근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고, 기록관에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이용 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Fawcett(2006)은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의 현황과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조직, 인력, 전사 및 공공 프로그램은 유사하나, 이 기록관들이 연합하면 접근, 보존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이 더 잘 해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개별성은 유지하되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연계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Smith와 Stern(2006)은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풍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의 대통령기록 열람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최대한의 공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대통령기록관 관련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김지현(2013)과 김태영 외(2014)는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지현(2013)은 대통령기록의 학술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통령기록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서비스를 검색, 열람, 연구지원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미국의 13개 대통령기록관의 유형별 서비스 사례분석과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 및 이용자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통령기록관 직원 3명과의 전화 면담과 대통령기록을 연구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3명과 전화 면담을 진행하여 현행 연구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김태영 외(2014)는 대통령기록관을 이용하는 학술연구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국내외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연구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기록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관 연구지원서비스의 모형을 제안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요구와 관련된 이 연구 결과들은 특히 질문지 개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1.3 대통령기록의 특수성과 특성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총리와 내각이 국정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의 수장인 총리와 내각의 기록물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기록은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공기록물과는 다르며 대통령기록만의 특수성을 지닌다(정광훈, 남영준, 2013). 한국의 대통령은 매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고유의 3권 분립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배찬복, 2001)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지만, 날로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통섭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아키비스트의 눈, 2020).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 등 대통령에 부여된 최상위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국내의 환경·안보·경제·사회보장 문제 등 수많은 정책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국가경쟁력 강화, 외교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분석이 요구된다(차우원, 2013). 이러한 업무를 대통령 혼자서 아닌 관련 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 비서실 및 여러 보좌기관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은 그 어떤 기록물보다 각 분야별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당대의 사회상을 풍부하게 반영 할 뿐만 아니라 후대 대통령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위한 중요한 사료가 된다(정광훈, 남영준, 2013).

이러한 배경을 가진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첫째,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 저변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강력한 권력이라는 속성이 있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민 투표로 선출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과 동시에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선출한 기관장에게는 기록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 의무를 더욱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설명책임 의무를 가지며,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차원의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아키비스트의 눈, 2020).

둘째, 대통령기록을 생산하는 대통령 및 각 보좌기관은 5년의 ‘일시적인’ 공무원이라는 특성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장관 등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성원이 유지되지만,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대부분 구성원이 교체된다. 대통령기록 또한 최대 5년의 주기로 움직이는데, 이 주어진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의 생산기관은 국정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국가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록을 이관하고 일정 수준의 생산 통제를 하는 공공기록물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

셋째, 정치적 민감성이다. 대통령이 갖게 되는 권력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즉, ‘통치행위’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의 내용을 담은 기록이 ‘국정통치기록’인 대통령기록이다. 대통령 기록의 정치적 민감성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통령지정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최대 30년까지 강력한 보호를 해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적 배려로 대통령 기록이 최대한 생산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생산 이후 일정 기간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치기록에 대한 생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정상우, 2013). 이러한 대통령기록만의 특수한 제도는 바로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특수한 존재라는 점을 증명하며, 대통령기록은 내용상 중요성을 뛰어넘는, 공공기록과 질적으로 매우 다른 범주에 속하는 기록물로 이해해야 한다(아키비스트의 눈, 2020).

따라서 특히 대통령기록관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포괄적이고 깊이도 있어야 하며, 이는 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기록의 특징을 살리는 연구지원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언으로도 유의미할 것이다.

2. 연구 설계 및 방법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연구 활동 과정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정보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통령 연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과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구 방식, 주제, 환경, 문제해결 방법 등의 경험을 청취하고 의견을 끌어내고자 구조화되지 않은 직접적 연구방법인 심층면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층면담을 통해 사실과 경험을 토대로 진행한 면담 결과에 기반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연구준비 단계, 면담 시행 단계, 면담 결과 분석 단계의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2.1 연구 준비 단계

먼저 연구 준비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피면담자의 표본 수집 및 선정, 면담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① :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대통령 통치기록을 그동안 이용한 방법은 무엇이며, 이들이 바라는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 연구 문제 ② :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 통치기록의 특성상 복잡적이고 유기적인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데 있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 연구 문제 ③ :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앞으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음으로 피면담자의 표본 수집 및 선정은 학술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RISS, 구글스칼라, DBpia, KCI, NDSL, eArticle에서 ‘기록’, ‘대통령’, ‘연설문’, ‘대통령기록’, ‘참여정부’, ‘국정과제’ 등과 역대 대통령의 성명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또한 대상 연구자가 적은 관계로, 대통령기록관 프로젝트로 기록물 해제 담당자, ‘대통령기록물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 입상자 확인, 그리고 인맥을 사용하거나 피면담자에게 또 다른 소개를 받는 스노볼링(snowballing, 눈증표집) 기법을 통해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기록을 활용해 직접 연구를 진행한 다양한 학문 영역의 연구자 34명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대부분 연구자의 논문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접촉하였으며, 일부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 웹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접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34명의 연구자 중 면담에 동의한 연구자가 총 8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개발과 면담 연구 수행과정에 대해서는, 김영천(2016), 김지현(2013), 성면섭과 이해영(2020), 권나현, 이정현, 정은경(2012), 임진희(2010), 한종엽과 서만덕(2014), Duff와 Yakel, Tibbo(2013)의 연구과정과 결과를 참고하였다. 초안 질문지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공동 저자들이 여러 번 논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와 박사과정생 대상의 파일럿 테스트를 2회 진행하였다. 이후 질문지 내용에 전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여 기록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도 피면담자가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피 면담 대상자에게 이를 사전 배포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총 대분류 6가지 질문영역 중 20개의 질의와 상황에 따라서 세부 질의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사전 질문가이드 내용 구성

질문 영역	기본 질의
I. 연구 분야 및 배경탐색	1. 간략한 본인소개 및 연구분야 2. 대통령 연구가 본인에게 차지하는 비중
II. 정보탐색 및 인지경로	1. 자료 탐색 방법 관련 2. 대통령기록관 소장 인지 관련 3. 대통령기록관 탐색 관련
III. 기록물 열람 및 이용 방법	1. 주 이용 대통령기록 종류 관련 2. 대통령기록 열람 방법 관련 3. 대통령기록 활용 관련 4. 정보제공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5. 열람을 통한 맥락 파악 관련 6. 대통령기록 열람 불가 관련
IV. 학술연구지원서비스 관련	1.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관련 2. 가공된 기록정보 서비스 관련 3. 추가적인 정보원 추천 서비스 관련 4. 정보제공자로부터의 희망사항 관련
V. 정보제공자의 전문성 관련	1. 대통령기록관에 원하는 기록이 없었던 경우 2. 정보제공자의 전문성 3. 정보제공자와의 이슈 관련 경험
VI. 향후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방향성	1. 대통령기록물과 활용 관련 소감 2.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제언 관련

2.2 면담 시행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면담 시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전염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과 피면담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피면담자에게 사전 질문지 송부와 함께 대면 면담 방식과 비대면 면담 방식의 전화, 화상회의,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면담 일자, 시간을 조율하였다. 2021년 3월 24일 첫 번째 면담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21일까지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중 비대면 면담 방식 중 인스턴트 메시지를 활용한 면담은 면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답변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8일간 진행하였다(<표 3> 참고).

<표 3> 피면담자 정리

구분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면담 방식	면담 일자
교수1	사회학	박사	한국현대사/민족주의/통일	비대면 면담(화상회의)	2021.03.31.
교수2	사회학	박사	문화사회/대중문화/문화정책	비대면 면담(전화)	2021.04.13.
교수3	정치학	박사	한미관계/남북관계/현대정치사	비대면 면담(전화)	2021.04.20.
교수4	무역학	박사	텍스트마이닝	비대면 면담(이메일)	2021.03.24.(답변 일자)
교수5	행정학	박사	지방자치제도	비대면 면담(이메일)	2021.03.27.(답변 일자)
연구원1	정치학	박사과정	숙의민주주의/정치수사/사회보장/통일	비대면 면담(카카오톡)	2021.04.01.~04.08.
실무자1	기록학	박사	기록정보서비스	비대면 면담(전화)	2021.04.21.
실무자2	기록학	석사	기록정보서비스	대면 면담	2021.03.26.

* 피면담자 집단 별 대통령기록 활용 연구 빈도수 및 연구 경력이 많은 순으로 넘버링 하였다.

2.3 면담 결과 분석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면담 결과 분석은 면담 과정이 녹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세부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자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사 과정 속에서 피면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였다. 이후 전사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엑셀을 이용하여 면담 질의 내용을 28개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후 정리된 내용을 결합·재구성하여 상위범주 4개, 하위범주 14개로 군집화(Clustering) 하였다(<표 4> 참고).

<표 4> 면담 내용 군집화(Clustering) 정리

상위범주	하위범주
대통령기록 활용	-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활동
	- 정보자료 검색 방법
	- 요구정보 인지·탐색 경험
	- 연구 활용 대통령기록 종류 및 내용
	- 대통령기록관 검색 만족도
정보요구 관련 문제	- 정보요구 해소 관련 문제
	- 정보요구 해소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
학술연구지원서비스	- 정보제공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관련
	-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 가공된 정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 정보제공자의 추가정보원 안내 관련
연구자 요구사항	- 정보제공자들의 전문성·능력에 관한 요구사항
	- 대통령기록 활용 관련 개선사항 제언

해당 연구 방법은 심층 면담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중요한 연구의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질적연구의 데이터는 매우 단편적인 개별 데이터에서 시작해 일정한 데이터가 반복되면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고 그 패턴이 모여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이해영, 이수영, 2001).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관점에서 8명의 연구자들의 면담을 통해 각자의 개인적 경험을 청취하고 그 안에서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즉 28개 범주의 데이터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하위 범주로 군집화(Clustering)하고, 더 나아가 상위 범주로 군집화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는 모두 대통령기록관을 학술적으로 활용해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고 면담 결과를 개념화하고 군집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질문 개발단계에서 2회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후, 수정·보완하였다. 다음으로 면담 시행 단계에서 모든 피면담자들에게 사전 질문가이드를 배포하여 가급적 같은 방식의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후 한 연구자가 8명의 피면담자 모두를 면담함으로써 면담 진행 과정에 일관성을 기하였다. 또 면담 과정에서 최대한 표준화된 단어를 사용하였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 진행 중 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한 후, 전사 작업을 진행하여 정확한 면담 데이터를 획득하고, 전사 자료와 군집화한 자료를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박사과정 재학생과 석사과정 졸업생 각 1명 및 공동 저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학술연구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

3.1 대통령기록 활용 관련

3.1.1 연구자 배경 및 연구 영역

면담을 진행한 8명의 연구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6명, 박사과정생이 1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명이고, 직업은 교수가 5명, 연구원이 1명, 그리고 실무자가 2명이었다(앞의 <표 3> 참조). 피면담자 모두가 대통령기록을 이용해 보았고, 연구 결과물로서 프로젝트 보고서, 연구논문, 대통령기록 해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에게 어떤 영역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청와대 관련인사 구술 채록, 정치수사학, 정권별 통일법 연구, 한반도 정세연구, 대통령 정치수사 전략, 정권별 정책 비교, 국가별 정책 비교, 한미관계, 대북문제, 문화정책, 사회현상, 기록정보서비스, 지방자치, 지방분권, 교육자치, 국가균형발전 지방선서, 지방재정 관련 통치행위, 대통령 연설문 텍스트마이닝 등이 언급되었다. 연구자들이 기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정책이나 사회 현상 등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적 인식이나 당시 정부의 태도나 정책 마련 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답변 중에 대통령기록과 관련된 본인의 연구주제에 대한 설명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분야는 사회학이다 보니까 사회현상이나 시기마다 어떤 것들을 볼 때는 당연히 그 기록 쪽 얘기를 봐야 되고 정부나 정책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사실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견해 의견 이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죠 ... 문화 쪽은 생각보다 가치 판단적인 부분이 많아서 ... 국정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최고 결정자니까 대통령이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 혹은 당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교수2)

3.1.2 정보자료 탐색 방법

연구자 대부분은 정보자료를 온라인상으로 접근한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정보 자료 탐색을 할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구글’,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하였고 이후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학술DB’를 이용하여 관련 연구논문을 검색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통령기록관, 노무현사료관, 김대중도서관 같은 기관의 웹 사이트 방문을 통해 탐색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또 개인적 인맥을 통하여 자료를 구하기도 하며, 도서관, 기록관 등에 대한 직접 방문은, 드물긴 하지만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 후 방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정보탐색 방법을 설명한 교수2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온라인 DB 등을 활용하여 정보 탐색을 한다고 하고, 자료 확보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저는 일단 연구할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DB중에서 국문자료는 ‘RISS’, ‘dbPia’, ‘KISS’ 같은 곳에 들어가서 검색을 먼저 해보고 분야가 좀 더 좁혀진다면 해당 학술지 전자저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검색을 하고 해외 문헌 같은 경우에는 ... 구글 scholar에서 검색을 하기도 해요. 전문적인 자료는 그렇게 검색을 하고 그냥 일반 포털 같은 경우는 뉴스기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렸나 참고하는 수준이고 ... 조금 옛날 오래된 책들이 필요하다 하면 도서관가서 대출을 하거나 복사를 하죠.” (교수2)

3.1.3 요구정보 인지 및 탐색

다음으로 연구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대통령기록관에 관심 주제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는지, 어떻게 대통령기록을 접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기록학 전공 연구자인 실무자1과 실무자2는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한 반면, 타 전공 연구자들은 대통령기록을 구글과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나 관련 연구논문의 참고문헌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에서 검색도구를 이용한 기록 탐색과 열람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특정한 기록물을 모르는 채로 전반적인 탐색을 진행하였고, 탐색 이후 키워드검색을 통해 범위를 점차 좁혀간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검색은 실제 주제어로 부여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자는, 예를 들면, 북한 키워드 자료를 찾기 위해 ‘북한산’을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 인용문은 연구자가 대통령기록관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기록관 웹 사이트상에서 진행했던 탐색 방법의 사례를 보여준다.

“대통령기록관을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연설문이라는 자료가 모여져 있는 것도 주제 관련해서 다른 연구 논문을 찾아보다가 대통령 연설문 활용한 논문들을 보게 됐죠 … 레퍼런스에서 보게 됐고 처음 그런 논문들에서 아 이런 사이트가 있구나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연설문도 있고 이런저런 자료가 있어서 활용하게 되었어요.” (교수2)

“웹 사이트를 활용했고요 … 연구의 특정 기록 명을 알지 못했지만, 연구 범주를 정해서 검색 후 오류 본 제외 작업 수행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사이트 접속 후 ‘북한’을 대입하여 검색했습니다. 검색된 자료 중에 ‘북한’ 키워드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별도의 추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산’을 언급한 연설문 제외 등 … .” (연구원1)

3.1.4 대통령기록관 검색 만족도

대통령기록관의 검색도구를 사용한 기록물 검색과 활용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한 4명 중 ‘실무자1’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연구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기록물에 대한 기술(description) 부족, 검색 결과 자료 내의 오류 본, 맞춤법, 누락 본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연구자1, 교수1). 한편 긍정적인 의견이었던 실무자1은 웹 크롤링을 통해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에 존재하는 연설문 전체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검색도구를 활용한 사례로는 볼 수 없지만, 그 기록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답변들은 연구자가 검색도구 이용 후 느낀 점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기까지의 어려운 과정과 불만족스러웠던 결과를 확인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솔직히 포털 검색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느낌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건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색하기도 힘들었고 … 철 정보, 건 정보 다 따로따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실무자2)

“검색 결과 제공이 불친절한 느낌? 검색은 잘 되지만 결과 반영 화면에서 서비스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기분? … 오류 본, 맞춤법, 누락 본 등의 일부 문제에 대하여만 불만족입니다.” (연구자1)

3.2 정보요구 관련 문제

3.2.1 정보요구 해소 관련 문제

8명의 연구자 모두가 대통령기록의 활용에 있어 한계를 느끼거나 문제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결과 나오는 기록 기술(description) 정보 자체도 빈약하고, 검색도구의 한계로 검색 옵션에 원문제공 선택란이 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실무자2). 또 띄어쓰기를 잘못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북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할 경우 ‘북한산’ 관련 기록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지적되었다(교수1, 연구자2).

또한, 기록물 자체의 오류와 주제 분류의 오류도 지적되었다. 기록물 자체 오류의 경우, 연구자가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기록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 연구자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연구자1). 주제 분류의 경우는, 기록콘텐츠 정책기록 카테고리에서 ‘문화’를 선택하여 탐색했으나, 기록명에만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경제정책 관련 기록인 경우도 있었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교수2). 또한 옛 영어발음을 현대발음으로 검색할 수 없어 단어 빈도 분석 연구에 저해 요소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교수2).²⁾ 또한 대통령 연설문의 경우에는 주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연구자가 직접 주제 분류를 해야 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기록의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아 대통령 연구의 범위를 축소했다는 얘기도 있었다(실무자1). 답변 중에 정보요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경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자료 검색이 안 나옵니다.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기록철이건 기록 건이건 … 제목명에 맞춰서 띄어쓰기를 해야지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못 찾아요. 이거는 좀 심하다 … 2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고치기에는 힘든 작업인가 봐요.” (교수1)

“문화, 경제 이런 식으로 나뉘져 있긴 한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은 경제와 관련된 것이고 카테고리는 경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만 그 내용은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던가 …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2)

3.2.2 정보요구 해소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였는데, 정보요구 해소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직원에게 직접 문의를 하여 기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 검색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는 단순한 질의응답 방식을 이용한 연구자도 있었고(실무자2), 지리적 위치의 한계로 인해 직접 방문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거나 기록 자체의 오류에 대해 문의를 한 경우, 전화를 계속해서 여러 담당자에 돌리는 것에 염증을 느껴 인맥을 통해 자료를 찾아본 경험이 있다는 연구자도 있었다(연구자1).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몰랐던 한 연구자는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기록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료 수집의 한계라고 느끼며 연구범위를 줄이기도 했다(교수2). 이러한 사례들은 연구에 있어 기록관리기관의 검색도구와 서비스 및 홍보 부족이 시간적 소모와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교수2의 답변은 연구자가 정보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 제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논문을 쓰고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 연구의 범위가 조금 줄어든 거죠. … 국가기록물은 이렇게 있고 누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같이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음알음 … 옆 사람이 알려준다거나 논문을 막 찾다가 타고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 같아요.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게 연구에 있어 시간적 소모를 많이 야기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교수2)

2)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영어단어를 많이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예로 연설 제목 ‘인푸레 억제에 관한 것’이라는 연설문에 ‘인플레’를 ‘인푸레’로 ‘인플레이션’을 ‘인푸레션’으로 되어있는데, 인푸레션으로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3 정보제공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정보제공자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는 대개 정보공개청구, 공개 가능 여부, 기록의 오류, 검색 방법 관련 등의 문의였다. 즉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연구 취지를 설명하면서 해당 기록물을 요청하거나, 연설 일자의 오류나 첨부 자료 열람 오류, 중복 등록 등 오류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대부분 미리 사전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정보를 간추린 다음 열람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였고, 연구 설계 과정이나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 한편 실무자1은 최근 이용자들이 대면접촉이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되도록 피하는 경향을 들며, 인터넷상에서 검색도구를 통해 정보요구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요청사항에 대해 묻는 경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실무자2). 연구자들은 정보제공자가 정보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다음 답변은 연구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와 함께,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보여준다.

“연설 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례, 연설문 첨부 자료가 열리지 않는 사례, 연설문 첨부 자료가 타 연설기록에 중복 등록된 사례의 경우 문의[를 하거나] 또는 자료 수집을 포기했습니다. ... [문의를 하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요, 담당자 전화 돌려드릴게요. 끊기면 뒷 번호 0000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바로 수정 가능하다고 한 건 오탈자[에 대한 것이]였고 그 외의 사항은 담당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어요.” (연구자1)

“요즘 이용자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대면접촉을 꺼리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더 비대면으로 뭔가 검색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전화하기 전에 최대한 검색을 해볼 거 같아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더 익숙하다 보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실무자1)

3.3 학술연구지원서비스 관련

3.3.1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현재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에 공지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연구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광의의 브라우징을 하기에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되겠지만, 특정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유용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실무자1). 한편, 실무자2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열람까지 7일 이내라는 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 제시된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앞의 <그림 1> 참조)이 모호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실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연구자는 8명중 1명 뿐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경우에 따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한 실무자1의 의견을 보여준다.

“연구 주제 탐구를 위한 브라우징을 하기 위해서는 쓰기 어려울 것 같고요 ... 제가 뭔가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고 싶다고 정해져있지 않다면 서비스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 제가 어떤 걸 특별히 타겟팅해서 기록물을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쓸 것 같아요.” (실무자1)

3.3.2 가공된 정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정보제공자가 연구자에게 기록정보를 일부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확인해 보았는데,

일부는 기록의 내용이 재구성 편집되거나 가공된 정보가 가공자의 주관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원문 그대로의 정보(Raw Data)를 제공받는 것이 연구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맞춤법 현대어 변환, 기록 디지털화 같은 연구자의 편의 관련 사항 해결 등은 일반 포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받는 것보다는 출처에 있어서 신뢰가 같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공 서비스로 연구 시간의 단축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의 예는 교수2와 교수3이 기록을 일부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보여주며, 원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의견도 보여준다.

“이게 누가 가공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단 가공을 한다는 건 가공하는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을 갖는다고 해도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 … 보기 좋게 정리한다면 모르겠는데 내용적인 부분을 다듬는다거나 아니면 뭐 추린다거나 이런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2)

“저는 원사료를 보고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록 서비스 정도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록을 통해서 어떤 사료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 사료를 서치하러 웹 사이트에 방문할 거 같고요 … 웹 서비스가 안 된다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할 거 같아요. 만약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자료라고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 같아요.” (교수3)

3.3.3 정보제공자의 추가정보원 안내 관련

정보제공자가 추가적인 정보원을 추천 및 제공해주는 것에 대한 의견과 추가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추가적인 정보원 추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다만,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에 능통하거나 관련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문성이 부족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다. 답변 중에 추가정보원 안내와 관련된 연구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당연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연구자나 일반인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 다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능통한 분들이 있던지 … 아니면 상담 역할을 하는 어드바이저가 있어야겠죠.” (교수1)

“이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원하는 거죠. 정보기관이나 연구지원센터를 이용 한다는게 … 일단 신뢰할 거 같아요 … 정보를 주시는 분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서 채용이 됐고, 거기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신뢰가 맞을 것 같아요.” (교수2)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이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키비스트가 전문연구자가 아니고 기록관리 전문가라고 한다면 실제 기록을 보고선 저한테 얘기해주기보다는 목록만 파악하고 얘기했을텐데 … 제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어찌 보면 교만함 때문에 그건 크게는 도움 되진 않는다고는 생각하는데 … 결론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겁니다.” (교수3)

3.4 연구자 요구사항 관련

3.4.1 정보제공자들의 전문성 · 능력에 관한 요구사항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았다. 딱히 전문성 보다는 정보제공자의 태도 개선에 비중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태도, 친절함, 사명감, 연구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는 능력 등의 추상적인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여 능통한

스페셜리스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수1, 2, 3, 4). 다음 예는 주제전문가의 필요성과 친절성에 대한 요구 및 이용자 중심 마인드 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보여준다.

“아키비스트의 역할도 하면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 한국의 역사들에 정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주제별, 대통령별로 아키비스트도 그런 기록물을 자주 접하고 공부하다 보면 정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통령별로 내부에서 전문가를 정해주든지 아니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분을 찾아가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기는 있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교수1)

“기본적으로 기록관리 쪽으로는 전문가이시지만 각 대통령기록을 자주 활용하는 학문영역들을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교수2)

“기대하지 않는데..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불친절해요... 모르는 걸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면 좀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교수3)

“이게 능력이나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전문성보다는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느낌을 이용자가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2)

3.4.2 대통령기록 활용 관련 개선사항 제언

대통령기록 활용에 대한 소감과 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개선 방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주된 의견으로는 대통령기록관의 복잡성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특징으로 인해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 이용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용 가능한 소장기록물들을 정리해 놓은 목록집이나 브로슈어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교수2). 그 중, 정보제공자의 최소한의 개입만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비스를 할 것 이라는 불신과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교수3). 또한 기록 카테고리의 세분화, 검색도구 및 검색엔진의 트렌드에 맞는 개선, 그리고 자연어 검색, #태그를 이용한 상대 참조 방식의 검색방식, 검색 빈도에 추천 검색어 등 웹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선 요구도 있었다. 다음 답변은 연구자들의 대통령기록 활용 후 느낀 한계와 실망감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의 예를 보여준다.

“저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료들 같은 것들이 자료의 종류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좀 정리되어있는 브로슈어 같은 정보를 일단 받으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관리에 관한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번에 이 주제로 연구하고 다음에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 다른 연구자들도 꾸준히 대통령기록을 가지고 여러 연구를 하는걸 못 봤거든요... 자료를 연구에 쓰려고 모으고 그걸 정제를 하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교수2)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목록화 작업 정도를 확실히 제공을 해준다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공분야가 다른데 내 연구를 이해를 기대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기록을 관리하는 지식에 있어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우선 보존기관으로서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서비스 기관으로서는 뺄점이거든요? ... 우물에서 물이라도 잘 길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 좋겠는데,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교수3)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여기에서는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의 이용 방법 및 요구사항, 문제점과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제공 방향 등 앞의 연구 준비 단계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 세 가지에 대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 연구문제 ① :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 걸쳐 산재 되어 있는 대통령 통치기록을 그동안 이용한 방법은 무엇이며, 이들이 바라는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연구 관련 정보 탐색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했으며, 넓은 범위에서 검색 포털을 이용해 탐색을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학술 DB, 관련 기관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탐색 범위를 좁혀 나갔다. 드물게 도서관, 기록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즉 대통령기록관 내의 기록을 주로 활용하는 연구자와, 대통령기록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련 기관(노무현사료관, 김대중도서관, 국립외교원 등), 해외 국가기록관,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연구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의 기록을 주로 활용하는 연구자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경험이 많지 않아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되는 기록물이 관련 연구에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정보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요구하는 기록이 검색 혹은 수집되지 않는 경우, 연구를 포기하거나 연구의 범위를 좁히게 되어, 그런 제한이 연구 활동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연구자는 기록학 전공 연구자나 대통령기록을 활용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연구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 또한 요구하는 기록을 온전히 얻을 수 없을뿐더러 그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고에 대한 기댓값이 요구에 미치지 못해, 확장된 혹은 새로운 관련 연구의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험치로 야기되는 연구자 간 정보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자를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자체적인 리서치 가이드의 개발과 학술지원서비스의 고도화와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타 기록관리기관 등 정보원과 연결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정보 탐색의 시간과 효율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연구문제 ② :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 통치기록의 특성상 복잡적이고 유기적인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데 있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연구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이용자 요구 반영 관련 문제점을 크게 검색 도구 측면, 기록 관리적 측면, 기록 공개 여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검색도구 측면에서는 연구자 대부분이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를 통해 기록을 검색하게 되는데 온라인 검색 도구의 뒤떨어지는 기능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우선 정확한 띄어쓰기를 해야 검색이 된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띄어쓰기를 잘못했을 경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기록명에 대한 정확한 띄어쓰기를 해야 결과가 제시되는 점이다. 또 주제 관련 키워드 검색의 경우, 키워드가 포함되어있는 기록들이 모두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기록 내용에 대한 미리보기나 원문제공, 간략한 기술사항이 빈약하여 일일이 클릭해보아야 하거나, 기록이 실제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자동으로 완성 또는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 연구자의 경우, 웹 크롤링을 사용하여 대통령 연설문 기록을 찾았는데, 이런 과정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쉽게 충족시키면

좋을 것이다.

기록 관리적 측면에서는 먼저 정책기록 카테고리별로 탐색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고 방대해 막막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심지어 카테고리 오분류로 인해 엉뚱한 곳에 기록이 분류되어있어 기존 주제 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기록의 온라인 열람 관련 오류도 지적되었다. 오탈자, 첨부 자료가 열리지 않는 경우, 첨부 자료 중복 등록 같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책임 회피,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전화 돌림 등의 미숙한 업무처리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록의 주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일일이 연구자가 직접 기록을 찾아 주제별로 분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그리고, 사진기록이나 영상기록의 경우 해당 기록의 맥락을 파악할만한 설명의 부재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자들에게 해당 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속적 이용에 있어 저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기록의 공개 여부 관련 문제로는 연구자가 공개되지 않은 기록을 열람하고 싶어 하는 경우,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적인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이 가능하지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검색도구 내 패킷으로 공개, 비공개 선택란이나, 원문제공서비스 여부와 같은 선택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효성은 없었다. 애초에 비공개 기록의 제한에 대해 아는 일부 연구자들은 탐색 과정에서 접근조차 하지 않았으며, 공개가 가능한 기록만 최대한 찾았다고 하고, 일부 연구자는 대통령기록관 검색도구에서 제공하는 기록이 전부라 생각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집을 포기하고 연구의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또 다시 연구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진행과 열람 프로세스의 재고 및 검색 가이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였을 때, 현재 대통령기록을 활용하는 연구는 피상적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으며, 기록 열람 과정에서의 많은 제약으로 기록의 내용에 깊이 파고들어 본질적인 연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열람이 불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통치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 기록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뿐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으나 그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연구자들의 요구는 1차적으로 검색도구에서 충족되어야 하며, 학술연구지원서비스는 검색도구를 통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색도구의 기능이 부족하고 기록 관리상의 오류가 있어 연구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고 연구에 차질을 겪는 실정이다. 연구자 모두에게 심층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검색도구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1차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심층적 요구를 가진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인 연구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연구문제 ③ :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앞으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 중인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니,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년 0명이었으며,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이는 사장(死藏)된 서비스라고 들었다. 면담 결과,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던 연구자는 8명 중 1명이었다.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저조한 이용률과 인식의 가장 큰 원인을 들자면 홍보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 하단에 작은 배너로 연구지원서비스에 관한 안내가 있는데, 시인성이 부족할 뿐더러, 검색포털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다. 관련 학회를 통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이 이 서비스를 알 수가 없어 필요해도 이용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학술연구지원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그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과

여러 검색포털의 검색 기능 제공 등 통해 이용자의 유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다소 모호하고, 기존에 이용해왔던 정보공개청구와 차이를 구분할 수 없어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 소요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기록을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객관성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최소한의 개입을 원하며,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자가 연구주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사이트 등의 정보원을 제공해 준다면 연구에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의 정보탐색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줄 뿐 아니라 정보전문가로서의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해 연구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추가 정보원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은 적극적으로 하되, 정보제공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아니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연구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제공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다. 그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친절함과 같은 서비스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 구조 특성상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대통령기록관은 연구지원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연구자를 돕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아키비스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원문을 바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록에 대한 기술 정보를 가능하면 충분하게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록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검색 기능의 제공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원문들을 바로바로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감한 정보는 부분공개라도 하고, 학술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공개 자료에 대한 공개 요청이 가능함을 쉽게 숙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수준 높은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내용 요약 기능 등을 활용하여 기록에 대한 더 많은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과거 연구는 전문분야의 학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수행하는 고도의 지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오늘날 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친숙한 의미로 변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기록정보서비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또한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부합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대통령기록을 연구에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8명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대통령기록 활용 경험, 정보요구 과정에서의 문제 직면 경험, 학술연구서비스에 관한 의견, 정보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을 통해 도출한 연구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연구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연구자 간 정보격차 감소와 연구자 수준별로 구분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대통령기록관의 활용 경험의 차이에 따라 정보검색의 결과를 얻는 수준이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은 원하는 기록을 얻지 못해, 연구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경험도 있었다. 먼저 연구자의 전공,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정보 탐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서치 가이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영국의 TNA를 들 수 있는데, TNA의 경우 ‘Help with your research’라는 이름으로 리서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탐색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장 중인 것(What we have)’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것(What we don’t have)’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장 기관으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자에게 친절한 리서치 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안내한다면, 기록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탐색 시간을 단축하여 연구의 효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러한 기반하에 학술연구지원서비스가 연구자 간의 정보격차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지원의 차이를 두고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된다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관련 주제 연구의 허브로서 연구자들에게 인식되어 이용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검색 도구 기능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세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민감해 짐으로써,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면, 검색 도구만으로도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많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시태그를 이용한 상대참조 방식 검색기능과 전거레코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해당 기록이나 인물에 관해 생성한 #태그를 검색점으로 지정하여 검색을 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전거레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을 ‘DJ’, ‘이명박’을 ‘MB’,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민주화항쟁’ 등으로 참조하여 검색을 처리한다면 하나의 키워드 만으로도 같은 키워드를 가진 기록이 검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어 처리 기반의 검색기능 도입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검색로그 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자연어로 질의를 하는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연, 오효정, 2020). 예로 ‘노무현 2005년 5월에 탄자니아 부통령에게 받은 선물’,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사진’ 등과 같은 방식을 자연어 처리라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의 온라인 검색도구는 자연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시기별로 사용자 검색 빈도수를 로그 분석하여 검색어 추천 서비스 및 인기 검색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검색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연구자에게 기록을 검색하도록 한다면 주된 문제점이었던 검색도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시소러스를 활용하여 검색하도록 한다면, 유사 검색어로 입력한 결과를 모두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에게는 여러 검색어를 입력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색기능의 개선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연구지원서비스가 연구자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용자들이 제시한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맥락정보의 제공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을 해야 할 것이다. 기록의 기술 수준을 철폐와 건별에 대해서도 진행하도록 하여, 많은 정보로 이용자들이 쉽게 기록에 대해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능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내용 요약 기능과 수기 기록에 대한 OCR을 활용한 텍스트 검색 기능의 제공 등을 통해 연구자가 기록에 대해 충분히 쉽게 검색하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Burke(2020)가 언급한 바와 같이³⁾ 오래된 필사본 기록도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고도화된 OCR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트 정보로 원문 검색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만 하다.

넷째, 학술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연구자들이 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되, 서비스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 정보검색 행태를 분석하여 서비스에 반영하고, 연구지원서비스를 통해 연구가 성공적으로

3) 기록을 자동 분류 하는데 큰 장애물은 수기 기록이다. 하지만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한 사람의 글자체를 학습시킨다면 수기로 기록된 글 또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된 수기 공문서에 대한 건별 또는 철폐 자동 인식 및 내용 요약을 통한 기술 등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여 다양한 인용 자료로 공지해 서비스의 장점 및 효율성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지원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서비스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을 인터뷰하여 기록 제공이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기록이 타 기록관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등 다각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록 열람에 있어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별 기록 열람 시설의 설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상 열람을 통해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는 민감한 기록들을 열람하고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수고를 통해 열람한 기록에 원하는 정보가 담겨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적, 비용적 소모를 야기하고 연구 활동의 저해 요소로 작용 될 우려가 있다.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불편사항과 정보 획득의 실패에 따른 손해를 인지하고 있어 기록관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모험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에 제시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원문을 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도서관의 책바다 서비스(국가 상호대차 서비스)⁴⁾와 같이 각 지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혹은 도서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본 기록물을 제공받고 외부 반출이 불가할 경우 관내에서 열람 후 반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주제전문 아키비스트의 양성이다. 기록정보서비스에서 이용자와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록학 전공이 아닌 이상 기록의 활용에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은 대통령 기록의 맥락 및 내용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에서 발휘될 것이다. 하지만 잦은 조직 구조 변경으로 인해 담당자가 자주 바뀔 때 따라 특정 대통령 기록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연구자가 아키비스트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전문성은 단기간에 함양되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야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각 대통령 별 기록을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게 하여 주제전문 아키비스트 양성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대통령기록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연구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팅 서비스의 도입이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시간에 전문 아키비스트와 글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여 필요한 기록의 존재여부나 기록의 확인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록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록의 일부를 보여줄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기록을 스캔하여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고도화된 채팅 서비스는, 거리의 제약과 기록의 기술 정보 부실에 의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 이미 도서관들은 ‘Ask Your Librarian’ 등의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십 년도 더 전에 도입하여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대통령기록관도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많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러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진행된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질적으로 훌륭한 서비스와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쌓이면 더욱 더 우수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우수한 연구자들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여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다양하게 학술연구지원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을 포함한 기록관리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기록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들이 기록의 존재를 파악하고 기록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록관에 대한

4) 책바다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로,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지역 내 도서관에 없는 경우, 자료를 소장한 타 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도서관에서 배송 받아 볼 수 있게 하여 자료 이용을 극대화 하는 정보봉사서비스를 말한다.

홍보를 확대하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이 연구자에게 뿐 아니라 사회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뿐 더러, 실질적으로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 권나현, 이정연, 정은경 (2012). 과학기술분야 R&D 전주기 연구. 국내 생명 및 나노과학기술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103-131.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103>
- 김병문 (2006). 한국대통령 연구의 특징과 발전 방안. 한국행정논집, 18(3), 815-842.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지현 (2013).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22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2.201>
- 김태영, 김건, 심갑용, 김용 (2014).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83-1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2.083>
- 남윤아, 임진희 (2016).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열람서비스 제공 절차 및 특징에 관한 질적 연구. 기록학연구, 0(50), 177-229. <http://dx.doi.org/10.20923/kjas.2016.50.177>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9호.
- 배찬복 (2001). 대통령중심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7(-), 243-260.
- 백지연, 오효정 (2020) 국가기록원 질의로그 빅데이터 기반 이용자 정보요구 유형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6(4), 183-205.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4.183>
- 성면섭, 이해영 (2020). 기록관리기관 이용 학술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119-138.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3.119>
- 아키비스트의 눈 (2020. 09. 17). 개별대통령기록관 왜, 어떻게 (1부. 대통령기록물의 특성 및 그간의 문제점). 출처: <https://www.archivists.or.kr/1644?category=341594>
-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http://dx.doi.org/10.14404/JKSARM.2012.12.2.163>
- 윤은하, 배삼열, 심갑용, 김용 (201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술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65-29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1.265>
- 이혜경, 이해영 (2014). 대학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안 실무자 면담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0), 131-180. <http://dx.doi.org/10.20923/kjas.2014.40.131>
- 이해영 (2012).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177-201. <http://dx.doi.org/10.14404/JKSARM.2012.12.3.177>
- 이해영, 이수영 (2001). 인터넷 정보의 탐색, 평가 및 활용: 대학 이공계 연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8(4), 163-181.
- 입여아 (2008). 기록물관리기관의 연구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임진희 (2010).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통한 공공기관 업무정보의 추구 및 제공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전공.
- 정광훈, 남영준 (2013).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419-448.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419>
- 정상우 (20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공법연구, 42(2), 125-149.

- 차우원 (2013).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 한종엽, 서만덕 (2014). 해양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163-187.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1.163>
- Burke, Fintan. (2020. Dec. 10). Machine learning and big data are unlocking Europe's archives. Available:
<https://ec.europa.eu/research-and-innovation/en/horizon-magazine/machine-learning-and-big-data-are-unlocking-europes-archives>
- Conway, P. (1986). Research in presidential libraries: A user survey. *The Midwestern Archivist*, 35-56.
- Das, A. & Banerjee, S. (2021). Optimising Research Support Services through Libraries: A Review Of Practices.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1-43.
- Fawcett, S. K. (2006). Presidential libraries: A view from the center. *Public Historian*, 28(3), 13-36.
- Forsman, M., Ndinoshiho, J., & Poteri, E. (2012). Research support services of University Libraries. *Reference Librarian*, 41(85), 180-200.
- Rempel, H. G. (2010) Services for Graduate Students: A Review of Academic Library Web Sites, *Journal of Web Librarianship*, 4(1), 19-35, DOI: 10.1080/19322900903492983
- Si, L., Zeng, Y., Guo, S., & Zhuang, X. (2019).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research support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The Electronic Library*, 281-301.
- Wendy M. Duff, Elizabeth Yakel, Helen Tibbo. (2013). Archival Reference Knowledge. *The American Archivist*, 76 (1), 68-94.
<https://doi.org/10.17723/aarc.76.1.x9792xp27140285g>
- Smith, N. K., & G. M. Stern. (2006). A historical view of access to records in presidential libraries. *Public Historian* 28(3), 79-11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Chan-bok (2001). A Study on the Presidential System: Approach to the comparison between America & Korea's. *Journal of Social Science*, 17(-), 243-260.
- Baek, Ji-yeon & Oh, Hyo-jung (2019). User Information Needs Analysis based on Query Log Big Data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4), 183-205.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4.183>
- Cha, Woo-won (2013). Comparative Study on the President's Personnel Management: Focused on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of President Kim Daejung and President Roh Moohyu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Chong, Sang-woo (2013).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42(2), 125-149.
- Han, jong-yup & Seo, Man-deok (2014).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age 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163-187.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1.163>
- Jung, Kwang-hun & Nam, Youn-joon (2013). Study on the Classification Guideline for the Korean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419-448.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419>
- Kim, Byung-moon (2006). The Characteristics and Ways to Develop in Korean Presidential Studies.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18(3), 815-842.
- Kim, Ji-Hyun (2013). Study on Research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 and Records Management, 13(2), 201-22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2.201>
- Kim, Tae-young, Kim, Geon, Shim, Gab-yong,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Methods to Improve the Research Support Service in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2), 83-1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2.083>
- Kim, Young-cheon (2016).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Paju: Academy Press.
- Kwon, Na-hyun, Lee, Jung-yeoun, & Chung, Eun-kyung (2012). Understanding Scientific Research Lifecycle: Based on Bio- and Nano- Scientists' Research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195-221.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103>
- Lee, Hye-kyoung & Rieh, Hae-young (2014).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University Archives'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Archives' Staff.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0), 131-180. <http://dx.doi.org/10.20923/kjas.2014.40.131>
- Lim, Yeo-ah (2008). *Strategies for Improving Research Support Services of Archives: Focused 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 Nam, Yeun-ah & Yim, Jin-hee (2016).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cedures and Characteristics of reading service Provision at Center of Archival Information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0), 177-229. <http://dx.doi.org/10.20923/kjas.2016.50.177>
- Rieh, Hae-young & Rieh, Soo-young (2001). Information Seeking, Evaluation, and Use on the Internet: A Case Study of Science and Engineering Schola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8(4), 163-181.
- Rieh, Hae-young (2012).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Information Services in Records and Archives Cen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177-201. <http://dx.doi.org/10.14404/JKSARM.2012.12.3.177>
- Seong, Myeon-seob & Rieh, Hae-young (2020).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Behavior of Academic Researchers Using Archival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3), 119-138.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3.119>
- The Observation of the Archivist (2020. 09. 17.).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Why, how? (Part 1: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Records and Problems in the past). Source: <https://www.archivists.or.kr/1644?category=341594>
- Yim, Jin-hee (2010). *A Study on the Process of Public Information Seeking and Providing through Accountability Mechanism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Major of System Integration Management.
- Youn, Eun-ha (2012).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63-179. <http://dx.doi.org/10.14404/JKSARM.2012.12.2.163>
- Youn, Eun-ha, Bae, Sam-yeol, Shim, Gab-yong, & Kim, Yong (2014). A Study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 through Freedom of Information Act: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265-29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1.265>